

e-Interview :

Cooperative Measures for World Cities and Business Leader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 지속가능한
성장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방안

Peter Bakker 피터베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겸 대표이사
前TNT NV 대표이사

Mr. Vijay Jagannathan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 WRI 선임연구위원
前 세계은행 아태지역 인프라관리 부문장



Cooperative Measures for World Cities and Business Leader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 지속가능한
성장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방안

Peter
Bakker 피터베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겸 대표이사
前TNT NV 대표이사



인터뷰 공동기획자

매튜 린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한도시부장

(Matthew Lynch, Director, Sustainable Cities,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장영민 시티넷 사업부장

송미경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도시는 세계 지속가능성 의제를 이끄는 최전선에 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궁극적으로 도시에서 판가를 낼 것이라 기대된다. 세계의 도시정부들은—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야심차게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전을 내세우며 도시의 경쟁력, 자원의 효율성 활용, 회복탄력성,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지도자로서 막상 이러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란 정말 어렵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건축, 에너지, 교통, 통신, 수자원,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서 계획, 건설 및 운영 등의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각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세계 경제 위기로 민간 부채가 증가되고 공공부문의 재정과 자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30년까지 전 세계 도시의 인프라 건설에 약 57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한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 기반 시설 전체를 합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이슈로 선진국은 낡은 인프라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고, 개발도상국은 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인프라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 간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시스템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도시 정부들은 친환경 건축, 도시환경에 맞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기술 도입, 스마트 전기망 구축, 전기차 시장발전 등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정책들은 모두 에너지 사용과 배출을 줄이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개별적인 요소들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저탄소 도시 인프라 기술의 적정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반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도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상적인 비전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드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기업은 특정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기술력, 관리 서비스, 재정 솔루션 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지속가능성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시스템 전반을 최적화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선진기업들이 세계도시가 당면한 복잡한 과제들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솔루션은 주로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로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상수관망,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환경 개선 효과와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향후 대규모의 신규자본 투입의 필요성을 지연시키거나 낮출 수 있다.

도시는 오랫동안 민간기업에게 솔루션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여 왔고, 기업은 도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시 디자인, 건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모델에서 기업은 주로 도시계획 및 실행 과정의 후반부터 참여하여 계획 초기에 전략적 조언을 하거나 혁신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초기 계획단계부터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델 개발을 통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영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담화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에서 뛰고 있는 기업과 도시정부를 대표하는 두 기관 간의 인터뷰 결과로 기업의 대표로서 WBCSD의 주요 활동과 노력,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Mr. Vijay
Jagannathan 비제이 자가나단

시티넷 사무총장
WRI 선임연구위원, 前 세계은행
아태지역 인프라관리 부문장



비제이 자가나단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탄생 일화가 흥미롭다. WBCSD가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또한 설립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유명한 저서인 ‘체인징 코스(Changing Course)’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피터베키 WBCSD는 약 200여 명의 선도적인 생각을 가진 글로벌 기업 대표로 구성된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계에 기업, 사회, 환경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참여를 촉구하고자 설립된 협의회이다.

WBCSD의 탄생은 리우 회의(Rio Summit)가 개최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사무국장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으로 스위스 기업가인 슈테판 슈미트하이니를 기업과 산업 부문의 수석고문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때 슈미트하이니 씨가 성공적으로 만든 포럼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CSD)’이다.

리우 회의 이후 BCSD는 기존에 있던 ‘환경을 위한 세계산업계협의회(World Industry Council for the Environment)’와 통합하여 1995년에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라는 명칭으로 공식 설립되었고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체인징 코스’는 WBCSD의 첫 출간물이자 설립의 근간이 되는 책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해요인’에서 ‘해결의 단초’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 세계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약 50여 명의 다국적기업 대표들이 모여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환경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우수한 사례를 조명하고 있다.

비제이 자가나단 그럼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오늘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Vijay Jagannathan WBCSD has an interesting history. Would you explain how it was established and also about the book ‘Changing Course’?

Peter Bakker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is a CEO-led organization of some 200 forward-thinking companies that galvanizes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to create a sustainable future for business,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ts origins date back to the 1992 Rio Summit, when Stephan Schmidheiny, a Swiss business entrepreneur, was appointed chief adviser for business and industry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better known as the Rio de Janeiro Earth Summit of 1992. He created a forum calle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BCSD was founded in 1995 through the merger of the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World Industry Council for the Environment.

Changing Course was the first major publication of the WBCSD. It was a game changing piece – marking a paradigm shift where business went from being seen as part of ‘the problem’ for achieving sustainability to being seen as a key part of ‘the solution’. It was built on the expertise of more than 50 lead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backed by an array of case studies, highlighting best practices of how business can make major contributions to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contributing to human development.

Vijay Jagannathan How does the WBCSD operate?

Peter Bakker WBCSD is governed by a Council made up of member company CEOs or their representatives. This Council delegates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including the Chairman and four Vice Chairmen, are elected for a two-

피터베커 WBCSD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Council)를 통해 운영된다. 이 협의회는 2년마다 1명의 의장과 4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 이사회(Executive Committee)를 임명하여 조직의 관리를 위임하며 일상적인 업무는 제노바 본부에서 회장(President)과 사무국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요 기능은 매년 조직이 수행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회의를 통해 기업의 지도자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여러 관점과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비제이 자가나단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피터베커 WBCSD의 역할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로 구성된 '액션 2020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행동변화의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계는 현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 그리고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제이 자가나단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서 '액션 2020'에 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액션 2020과 그 바탕이 되는 2050 비전은 무엇이고, 오늘날 현안과 이슈는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란다.

피터베커 '비전 2050'은 WBCSD가 2010년에 발표한 보고서로 2050년까지 약 9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인구가 지구에서 함께 잘 살 수 있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되는 기업의 의제와 지속가능성 의제가 무엇인지 전 방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WBCSD의 회원 기업과 스톡홀름 회복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세계자원학회(World Resources Institute)가 공동으로 약 18개월 동

year period by the Council. Responsibility for the day-to-day management of the WBCSD affairs lies with the President based at the Geneva headquarters and assisted by a staff secretariat.

The Council meets annually to decide on the organization's priorities and discuss strategic issues connec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meetings provide a forum where business leaders can analyze and debate views and experiences on al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Vijay Jagannathan What do you think is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WBCSD?

Peter Bakker WBCSD has allowed the critical role of business in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recognized globally.

Going forward, our Action2020 platform, which is an actionable agenda for business to move forward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allow the WBCSD to continue to play a global leadership role in scaling up transformational action for sustainability. Business will be the key solutions provider in addressing the complex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that societies face today.

Vijay Jagannathan It seems that a vast effort has been put in making Vision 2050 and Action 2020. Would you briefly introduce us the vision and the a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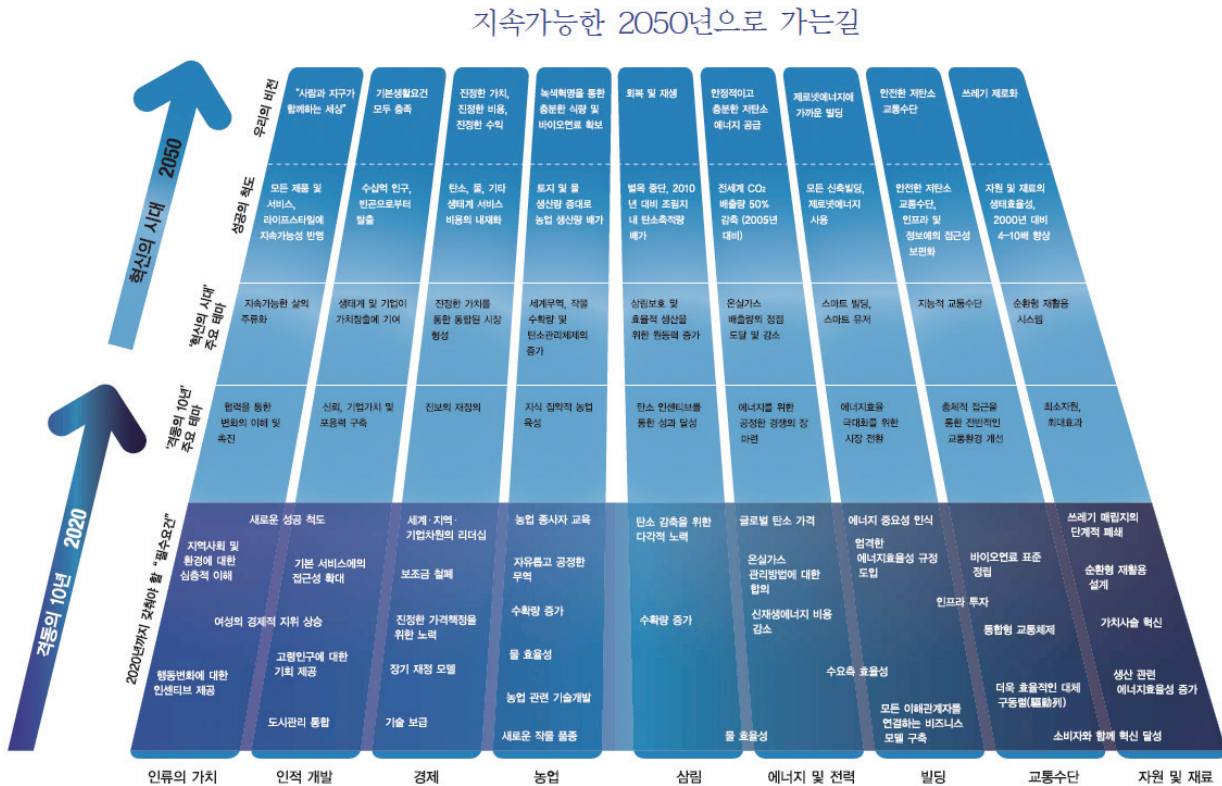
Peter Bakker In 2010, WBCSD published Vision 2050 – a wide-reaching report on the priorities for business and sustainability that must be addressed by mid-century for 9 billion people to be able to live well an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lanet. The report was the outcome of an intensive 18-month study of environmental, demographic and development trends completed in partnership with the WBCSD's member companies, the Stockholm Resilience Centre and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For the first time, global business publicly stated that business as usual was no longer an option and outlined pathways for transformational change. Vision 2050's long-term perspective needed to be completed by an actionable roadmap and

안 환경, 인구, 개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글로벌 경제계가 처음으로 더 이상 '지금처럼 기업 활동을 하는 것(Business as Usual, BAU)'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변화를 위한 길잡이를 제시한 것이다. 비전 2050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액션 2020'의 목표 달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들을 담은 액션 2020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크게 9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9가지 요소는 기후변화, 토지 자양분의 부족, 생태계, 유해물질 노출, 물,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 기술과 고용,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그 외 식량/연료/섬유/바이오 연료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9가지 요소가 'WBCSD의 액션 2020' 플랫폼의 근간이 된다.

Action2020 was born. The Action2020 platform identifies targets we need to achieve by 2020 to be on track for the longer-term 2050 goal and addresses nine science-based priority areas: climate change; release of nutrient elements; ecosystems;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water; basic needs and rights; skills and employment; sustainable lifestyles; and food, fuel, fibre and biofuels. These actionable priorities, and the societal goals (Societal Must-Haves) that were developed alongside them, form the core of the WBCSD's Action2020 work platform. With our members, we are working to develop strategic, measurable, scalable, replicable and beyond business-as-usual business solutions that can have a measurable and significant impact towards achieving these Societal Must-Haves. Some business solutions require only companies' efforts to implement; others will be enabled by policy and regulatory changes or partnerships.

그림1 비전 2050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및 9가지 핵심요소



현수세(BAU) 유지 상태

자료 : WBCSD, 2010, 비전2050 기업의 새로운 화두

비제이 자가나단 최근 어떠한 국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협력을 도모하는가?

피터베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공공과 민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연구소, NGO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¹’, ‘유엔 세계기업협약기구(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²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에게 영향력 평가와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이클레이(ICLEI), 시티넷(CITYNET) 등 도시 레벨의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시티넷과 협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수십 년 간 세계 도시의 성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시티넷 회원 도시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지도자들이 선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도모 한다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티넷과 WBCSD 간의 협업을 통해 도시와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WBCSD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이들이 제공하는 글로벌한 플랫폼은 기업 부문에서 에너지, 생태계 시스템, 물, 식량 확보 등 각 부문의 야심찬 의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솔루션의 영향력과 스케

Vijay Jagannathan What ar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you are in partnership with? What do you cooperate on?

Peter Bakker WBCSD works with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to think-tanks and NGOs, in order to fully leverage the combined sustainability effort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cently, the WBCSD has partnered with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¹ an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² to develop a guide for business actio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llaborative project to guide companies in impact assessment, KPI selection and goal setting to help achieve the worl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cities domain, we have been partnering and cooperating with leading city organizations and networks such as ICLEI and CITYNET. We actually see a very exciting opportunity to build our relationship with CITYNET. So much of the world's future urban growth in the next decades will be happen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 CITYNET member cities themselves. Strategic engagement with leading business solution providers can be a key tool for city leaders to address the complex interconnected challenges facing fast growing cities. Collaboration between CITYNET and WBCSD can therefore be a key platform for supporting this crucial city-business cooperatio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partners allows the WBCSD members to be true catalysts for change, leveraging the global platforms necessary to support and mobilize an ambitious agenda for private sector action in such areas as climate and energy, ecosystems, water and food security to name a few.

Close collaboration with policymakers is integral to bringing

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1997년 미국의 시민단체 CERES와 유엔환경개발(UNEP)이 중심이 되어 설립

² 유엔 세계기업협약: 전 세계의 기업에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등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준수, 실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한 협약(자료: 커먼 웰스, 2009, 제프리 삭스 저, 이무열 번역)

일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과 협업이 필수적이며 WBCSD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제이 자가나단 도시 개발과 인프라와 관련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 달라.

피터베키 WBCSD의 회원 기업의 상당수가 도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중 ‘도시 인프라 이니셔티브(Urban Infrastructure Initiative, UII)’는 14개의 선도 기업들(세멕스, GDF 수에즈, 지멘스, 악시오나, 에이콤, AGC, EDF, 혼다, 닛산, 필립스, 슈네데르 엘렉트릭, TNT 익스프레스, 도요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도시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표1 UII 참여 기업

기관명	소속 국가	설립년도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세멕스(Cemex)	멕시코	1906년	시멘트
GDF 수에즈(GDF-Suez)	프랑스	1858년	에너지
지멘스(Siemens)	독일	1847년	전기전자 제품
악시오나(ACCIONA)	스페인	1906년	에너지
에이콤(AECOM)	미국	1990년	건설
AGC	일본	1907년	유리, 화학, 하이테크 원료 제품
EDF	프랑스	1946년	전력
혼다(Honda)	일본	1948년	모토사이클, 자동차
닛산(Nissan)	일본	1933년	자동차
필립스(Philips)	네덜란드	1891년	전자제품
슈네데르 엘렉트릭(Schneider Electric)	프랑스	1836년	전기기기
TNT 익스프레스 (TNT Express)	네덜란드	1946년	특송 서비스
도요타(Toyota)	일본	1937년	자동차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United Technologies)	미국	1929년	기계 제조

about significant scale and impact of businesses’ solu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WBCSD is proud to bridge these important change agents.

Vijay Jagannathan Which of the compan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field of C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 area?

Peter Bakker A large number of the WBCSD member companies provide services and solutions for cities. In the case of the Urban Infrastructure Initiative, there were 14 leading companies involved: Cemex (Co-Chair), GDF SUEZ (Co-Chair) Siemens (Co-Chair), ACCIONA, AECOM, AGC, EDF, Honda, Nissan, Philips, Schneider Electric, TNT Express, Toyota and United Technologies – with an array of knowledge and skills to help unlock opportunities for urban authorities to create cities that are more sustainable, efficient and livable.

비제이 자가나단 WBCSD는 도시 정부와도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가? 함께 하는 일은 무엇인가?

피터베크 그렇다. UII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10개 도시 정부 – 투르쿠(핀란드), 틸부르흐(네덜란드), 아마다바드, 라즈코트, 수라트, 구자라트 주의 바도다라(이상 인도), 이싱(중국), 고베(일본), 과달라하라(멕시코), 필라델피아(미국) –와 함께 일해 왔다. 각 도시에서 UII는 여러 분야의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동원하여 각 도시정부의 고위층 인사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용적이고 획기적인 솔루션을 찾고자 하였다. 이 팀들은 함께 서로의 분야를 넘나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획기적인 ‘솔루션 지형도(실용적인 해결책 목록)’를 만들었다. 앞으로 WBCSD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 계속해서 기업과 도시 정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시킬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티넷 회원 도시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WBCSD의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Global Network Partners)’와 협력하는 것이다. WBCSD는 전 세계에 65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들이 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 훌륭한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통로로 WBCSD 도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제이 자가나단 UII 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다. UII의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고 프로파일링과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가? 추진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피터베크 도시는 세계 지속가능성 의제를 이끄는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그들은 야심차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며 더욱 경쟁력 있고 자원 효율성과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포용성이 있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지도자로서 막상 이러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건축, 에너지, 교통, 통신, 수자원,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서 계획, 건설 및 운영 등의 구조를 개혁하고 각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여야만 한다.

Vijay Jagannathan Does WBCSD work directly with the city government? If so, what do you cooperate on?

Peter Bakker Yes, within the UII project, we worked with ten cit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urku (Finland); Tilburg (The Netherlands); Ahmedabad, Rajkot, Surat and Vadodara in Gujarat State (India); Yixing (China); Kobe (Japan); Guadalajara (Mexico); and Philadelphia (USA). In each city, the UII mobilized a multi-disciplinary team of company experts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senior city officials to help each city identify practical and innovative solutions to advance their sustainability agenda. These teams took an integrated, cross-sector approach to analyze the city’s major sustainability challenges and to develop an innovative “solutions landscape” (i.e., a portfolio of practical solu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Going forward, the WBCSD will be continuing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catalyze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 and city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one important potential engagement avenue for CITYNET member cities can be with WBCSD Global Network partners – these are national business sustainability leadership organizations of which there are 65 around the world. We have excellent Global Network partners in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ere will also b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in future WBCSD urban sustainability programs as well.

Vijay Jagannathan The UII initiative sounds very interesting. How do you select the cases, profile, and find solutions? Could you elaborate on the details of the procedure?

Peter Bakker Cities are at the leading edge of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By 2050, 70%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live in cities and they are rising to this challenge by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도시가 당면한 이와 같은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상적인 비전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기업은 특정 기반 시설 건설이나 기술력, 관리 서비스, 재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시스템 전반을 최적화 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도시와 기업이 전략 단계에서 함께 일한 훌륭한 예시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이기보다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WBCSD가 설립한 UII는 기업이 해결책 제시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도시와 기업 사이의 협력적인 전략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UII 최종보고서(2014년 4월 발간, WBCSD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는 기업과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관심이 있는 도시 정부기관들에게 지속가능성 목적을 달성하기 방안과 배울 점들을 담고 있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시티넷 구성원들에게도 이 리포트를 추천하고 싶다.

비제이 자가나단 마지막 질문은 서울시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시도 도시가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한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가능성 의제 달성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공유도시, 에너지 절약(원전하나 줄이기), 도시농업 장려, 사회적 기업 지원 등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서울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 도시의 역할과 영향력이 높아질 것을 예견하고 서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 공동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을까?

피터베커 서울은 이미 도시의 지속가능성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다. 매년 개최되는 WBCSD 위원회 회의를 2012년 서울에서 개최했을 때 몸소 경험했고, 당시 우리의 특별 손님으로 초청된 박원순 시장이 가진 비전과 리더십에 크게 감탄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pursuing ambitious objectives that will make them more competitive, resource-efficient, resilient and inclusive.

Realizing these visions in practice is a complex challenge for city leaders. In particular, they will typically necessitate major transformations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city's infrastructure systems – including buildings, energy, mobility, telecommunications, water, sanitation and waste management services – and optimizing the inter-linkages between these systems.

Businesses that are committed to sustainability and experienced in delivering effective solutions can help cities navigate these challenges and turn a high-level vision into practical and implementable action plans. Business can play a vital role not only in providing specific infrastructure, technology, services and financing solutions, but also in contributing to the strategy that will support the overall optimization of urban systems to drive sustainability.

While there are already excellent examples of cities and business working together at the strategic level, this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The WBCSD established the UII to advance the urban sustainability agenda by showcasing the critical role that business can play as a solution provider and by providing a platform for collaborative strategic engagement between cities and business.

The UII final report (published in April 2014 and available for download through the WBCSD website) provides recommendations and key lessons for any city government that is interested in working with business proactively to help achieve its sustainability objectives. We would certainly recommend the report and its key findings to CITYNET members who are interesting in building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to make their city more efficient, sustainable, resilient and competitive.

Vijay Jagannathan Final Question is regarding Seoul. Rec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has been trying to contribute more to the sustainability agenda as they acknowledge the unique position that a city has in implementing real solutions to solving global problems.

의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에너지, 이동성, 물과 쓰레기 관리, 사회적 영향력, 스마트 시티 정부 모두 WBCSD 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야이거나 우리의 회원들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앞으로 서울시와도 세계 도시를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사업사례 : 중국 이싱에서 네의 활동

이싱(Yixing)은 도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장쑤성(Jiangsu)에 위치한다. 난징-상하이-항저우(Nanjing-Shanghai-Hangzhou) 삼각주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약 1,248,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도시의 장기 개발 목표는 명확하다. 중국에서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지속가능기업 협의회의 소개로 네는 2012~2013년까지 이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네팀은 솔루션 지형도를 폭넓게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성, 교통, 도시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중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목표는 다음 2가지로 선정하였다.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절한 도시구조

토지이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사용하여 생태계를 보전 및 보호하고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며 도시의 생태적 점유면적(ecological footprint, 생태적 발자국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이 생활하기 위하여 생태계에 요구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표를 의미)을 낮추어야 한다.

2. 복합용도의 도시디자인과 녹색 인프라로 생태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보호
토지이용을 최적화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 이동성과 대중교통을 강조하고 녹색 공간, 공원과 정원, 습지와 수로 띠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싱시에 위와 같은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상위 레벨의 전략적 계획 보고서를 만들어 토지이용, 도시디자인, 녹색 인프라 건설과 교통 계획 등에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유하고 추가적인 연구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계획을 더욱 정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싱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교통과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제안 사항은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시 만들기, 복합용도의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model, TOD), 그리고 기존의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새로운 정보와 교통 관리 기술을 도입이다. 비록 현 단계에서는 네의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총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이르나 이미 이싱시는 주요 제안 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트램(Tram) 네트워크 개발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현재 구체적인 타당성 연구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CR) 산하 교통연구원과 협력 아래 시작되었다.


참고 : UII 이싱 보고서 (UII Yixing Report: ASolutionsLandscapeforYixing)

For example, SMG have been transforming Seoul with innovative policies such as “Share City Policy”, “Policy on Reducing Use of Energy”, “Promoting Urban Farm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etc., to support solving global problem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ir citizens.

Also they are taking more initiative to share their experience abroad as the influence of city governments are growing bigger in the global community, especially with their experience on rapid urban development such as managing public transportation, air quality, water supply and waste, e-government and so on. Do you see the possibility for a collaboration with Seoul in the future?

Peter Bakk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ity of Seoul is already a global urban sustainability leader. We learned this first hand in 2012, when we held our annual WBCSD Council Meeting in Seoul. We had Mayor Park Won Soon as a special guest at our meeting. WBCSD members were very impressed by his vision and leadership.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driv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e whole Asia Pacific region through the invaluable support it provides in hosting CITYNET.

In this context, I am certain there are a wider range of potential areas of collaboration between SMG and the WBCSD. All the areas you mention – energy, mobility, water, waste management, social impact, smart city government - are examples of areas where either the WBCSD has active programs or our members are playing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sustainable solutions. We would very much like to explore these potential opportunities in the near future with SMG as part of our collective interest in making the world's cities more sustainable. 

참고 문헌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Infrastructure Productivity: How to save \$1 trillion a year
- WBCSD, 2010, 비전2050 기업의 새로운 화두